

제33회 아산상 시상요강

1. 취 지

승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효행 및 가족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인사와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함.

2. 시상내용

시상부문	인 원	상 금	비 고
아 산 상*	1명(단체)	3억원	* 추천 부문이 아님
의료봉사상	1명(단체)	1억원	
사회봉사상	1명(단체)	1억원	
복지실천상	3명	각 3천만원	
자원봉사상	3명(단체)	각 3천만원	
효행·가족상	3명	각 3천만원	

3.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 자 격

- (1) 아 산 상 :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 (2) 의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3) 사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개인 또는 단체 (시설장·기관장 포함)
- (4) 복지실천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복지대상자들의 보호와 교육, 재활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 (시설장 제외)
- (5) 자원봉사상 :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대학생 동아리 포함)
- (6) 효행·가족상 : 부모에 대한 효행, 자녀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가족간 우애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사람 (다문화 가정 포함)

2) 요 건

- (1) 단체의 경우는 정회원 10인 이상일 것
- (2) 효행의 경우 대상자가 생존해 있을 것

4. 추천인의 자격

- 1)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의 장
- 2) 대학의 장
- 3) 사회단체의 장(지회장 포함)
-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지회장 포함)
- 5)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 6) 재단이 위촉한 인사

5. 추천시 유의사항

- 1) 추천인은 시상부문별로 1명(단체)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음.
- 2) 개인의 공적내용이 주로 소속 봉사단체의 활동인 경우 해당 봉사단체를 추천해야 함.

6. 추천서류

- 1) 개인 추천 : 추천서(서식 I), 개인이력서(서식 II-1), 공적조서(서식 III)
- 2) 단체 추천 : 추천서(서식 I), 단체소개서(서식 II-2), 공적조서(서식 III)

※ 서식 내려 받기 : 재단홈페이지(<http://www.asanfoundation.or.kr>)

※ 추천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에 한하여 현지조사 시 접수예정

7. 추천 방식 및 기한

- 1) 온라인 추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및 추천서 제출
- 2) 추천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4월 23일(금)

8.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1) 수상자 발표 : 추천기관에 개별통보(9월 예정) 및 일간지 공고
- 2) 시상 : 2021년 11월 25일 (예정)

9. 기타

- 1) 수상공적의 허위사실 또는 위법행위 등으로 아산상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수상자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밝혀진 경우 수상자 선정과 시상을 취소함.
-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3) 문의 : 재단 사무처 (E-mail: asanwelfare@amc.seoul.kr / TEL: 02-3010-2560, 2559)

제32회(2020년)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부 문	수상자(단체)	주요 공적내용
아 산 상	여혜화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소속 수녀로 19세에 수녀가 된 후 대구와 창원, 소록도 등에서 간호사로 활동하다가 1993년 우간다에 파견되어 27년간 봉사해오고 있음. 1995년 우간다에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헬스센터와 유치원,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헬스센터는 산과와 치과, 에이즈센터가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발전하였고 초등학교는 국가고시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명문학교로 인정받아 우간다뿐만 아니라 케냐, 콩고 등지에서도 입학하고 있음. 여혜화 수녀는 2018년부터 수녀회의 우간다 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헬스센터와 학교 운영, 빈민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의료봉사상	민형래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과 동시에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사막지역으로 떠나 19년간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현지 이동진료 중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을 만난 후 사막지역의 유일한 병원 설립을 결심하였고, 2013년 개원한 병원은 현재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4개 진료과에 7명의 전문의, 50개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발전해 월 평균 2,500여명의 주민을 진료하고, 매달 100여건의 수술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사회봉사상	성모자애원	프랑스 출신 남대영 신부(본명 루이 델랑드, 1895~1972)에 의해 1936년 설립된 성모자애원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공적인 복지체계가 부재하던 시기에 전쟁고아, 노인, 장애인, 한센인과 같은 소외계층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왔음. 지난 84년간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복지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족정신을 실천하라' 는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에도 노숙인, 노인, 장애인 시설, 무료급식소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복지실천상	김연희	동명아동복지센터에서 28년간 근무하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각종 매뉴얼을 개발하고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해왔음.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부센터장을 역임하며 국내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
	황덕경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미디어 영상물의 정보 접근권 강화, TV 시청권 보장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음.
자원봉사상	권혁기	노인대학 운영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왔음.
	김옥이	가위사랑봉사단 단장으로 지난 36년간 요양병원과 경로당 등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박진관	건축설비분야 국내 1호 명장으로, 건축설비 봉사단 단장을 역임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이어왔음.
효행·가족상	김순래	남편 사별 후 시어머니를 홀로 봉양하면서,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돌보았음.
	모마리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여성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연로한 시부모와 가족들을 부양하였음.
	진선남	장애가 있는 남편과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가장의 역할을 해왔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왔음.